

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8. 20.(금) 17:00	배포일시	2021. 8. 20.(금) 16:30
담당과장	기획재정부 국고과장 김구년 (044-215-5110)	담당자	안영환 사무관 ynghwn@korea.kr
	기획재정부 국채과장 김이한 (044-215-51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
## 정부, 추경에 반영된 2조원 규모 국채 순상환 추진

- ① 그간 추경을 통해 추진한 국채 상환 중 최대 규모,
- ② 금년말 기준 국가채무비율, 추경 이전 48.2%→47.2%로 감소,
- ③ 국채시장 안정에도 일정부분 효과 기대

□ 정부는 금번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2조원 규모의 국채 상환을 위해 8.25일, 8.31일 양일간에 걸쳐 총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매입(국채 순상환)하기로 하였다.

- 매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사전 공고하는 기존의 만기 분산용 바이백과는 달리, 금번 국채 순상환의 경우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입찰시점에 임박하여 공고하는 긴급 바이백의 형식으로 진행된다.

※ 매입 종목 등 자세한 내용은 국채시장 홈페이지(ktb.moef.go.kr)에 게시되는 입찰공고문 참고

□ 금번 2조원 규모의 국채 순상환은 그간 추경을 통해 추진한 국채 상환\* 중 가장 큰 규모이며, 이를 통해 국가채무비율 감소, 국채시장 안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.

\* '16년 추경시 1.3조원, '17년 추경시 0.7조원 국채상환

- 국고채 2조원 조기 상환, 실질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(3.2→4.2%) 등으로 금년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추경 이전 48.2%에서 47.2%로 1.0%p 낮아질 전망이다.
- 또한,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종목들을 매입함으로써 국채시장 심리 안정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.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